

# 印刷의 發生以前의 韓國書誌資料에 관한 一考

李 姬 載\*

- |                 |         |
|-----------------|---------|
| I. 序 文          | 2. 未傳物  |
| II. 該當年代 및 對象資料 | IV. 結 語 |
| III. 書誌資料一覽     | 參考文獻    |
| 1. 現存物          |         |

## I. 序 文

일찍이 우리의 先祖들은 世界文化史에 획기적인 偉業을 남겼으니 바로 金屬活字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發明, 使用한 印刷術의 革命이었다. 비록 그 發展過程에서, 오히려 늦게 出發한 西洋에 비해 뒤처짐으로서 世界印刷史 속에 그 意義만큼 比重이 주어지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이 分野의 東西洋學者間에 반드시 거론되어지는 金屬活字의 發明은 韓國文化의 긍지를 심어주는 一面이 아닐 수 없다.<sup>(1)</sup>

「印刷術은 文明의 어머니」라는 말대로<sup>(2)</sup> 人間의 思想이나 諸般情報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後代에 길이 遺傳시킬 수 있는 印刷術의 出現 및 發達は 人類文化에 가장 基本的인 役割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印刷術의 誕生의 背景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先史時代로부터의 하나의 發展經路였다.

人間이 自身の 意思를 표시하고자 하는 욕망은 처음에 音聲이나 動作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에 言語, 符號表示, 文字의 誕生, 文字의 記錄 등으로 發展되었다. AD105年 蔡倫에 의한 종이의 發明<sup>(3)</sup>은 文字의 記錄面에서 一次的인 革命을 가져왔고, 筆寫本의 時代를 거쳐 마침내는 木板印刷와 活字印刷의 技術이 發明되고 發展되면서 現代的 概念으로서의 圖書가 그 위치를 굳혀온 것이다.

書誌學에서 다루어야 할 對象은 바로 이 文字의 記錄으로부터 出發된다.<sup>(4)</sup> 書誌學 또는

\* 淑明女子大學校 文科大學 助教授

(1) 拙藁, 「朝鮮朝 活字鑄造 및 文獻刊行의 綜合的 評價」, 圖書館學 第9輯, 1982, p. 54 註 2.

(2) 張秀民, 「中國印刷術의 發明及其影響」北京, 人民出版社, 1958, p. 1.

(3) 「後漢書」卷 108, 倫傳.

(4) 安春根, 「韓國書誌學」서울, 廣文書館, 1979, p. 13.

書誌資料를 論할 때 우선 學論되어지는 것은 典籍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金石文이라든가 기타 文字의 記錄物에 대한 研究 또한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될 書誌學의 一部分인 것이다. 물론 金石學이 學問의 一分野로서 이에 대한 꾸준한 研究를 계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의 書誌學界는, 目錄學의 側面에서 典籍을 수록한 書誌資料라든가, 典籍에 대한 形態書誌學的 研究는 많이 行하여 왔으며 典籍이외의 文字의 記錄物에 대한 考察은 다소 等한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問題의 一部가 印刷術의 濫觴의 前提條件으로<sup>(5)</sup> 또는 韓國 書誌學의 初期 對象으로<sup>(6)</sup> 소개되기는 하였으나 일정한 時期의 書誌資料로서 總收錄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結果에는 반드시 그것을 招來한 經路가 따르게 마련이다. 韓國이 古印刷文明의 先進國이었다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背景 역시 結果만큼 重要하다 할 것이다. 本考察은 이 背景에 대한 重要한 意味를 찾고 印刷術 出現以前의 古代韓國의 書誌資料를 綜合하여 整理함으로써 미비하나마 當時의 社會文化研究의 一次資料를 제공함에 그 目的을 둔 것이다.

## II. 該當年代 및 對象資料

印刷의 發生以前이라고 할 때 時期的으로 精確히 定義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印刷의 發生 以前으로 時期를 잡은 것은, 마치 先史時代와 歷史時代, 封建社會와 市民社會가 구분되는 것과 같은 意味로서, 印刷의 出現이 書誌學史, 나아가서는 文化史 全般에 커다란 轉換點으로 作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印刷의 發生時期에 대하여는 學者에 따라 異見을 보이고 있다.

中國의 張秀民은 歷代의 學說로서 漢朝說(165年) 東晉咸和說(326~334), 六朝說(222~584), 隨朝說(581~617), 唐朝說(618~908), 五代說(907~959), 北宋說(960~1126) 등을 열거하고 自身은 唐太宗貞觀10年(636年)의 記錄<sup>(8)</sup>을 제시하면서 이 時期의 前後를 꼽고 있다.<sup>(9)</sup> 日本의 秀氏祐祚는 7세기 後半<sup>(10)</sup>, 長澤規矩也는 8세기 前半<sup>(11)</sup>, 中國의 劉國均은 7세기~8세기<sup>(12)</sup>, 屈萬里·昌彼得 兩氏는 中唐以後<sup>(13)</sup>, 美國의 Thomas F. Carter는 712~756년<sup>(14)</sup>, 그

(5) 千惠鳳, '韓國印刷術의 濫觴' 成均館大學校論文集 第19輯(1974) pp. 157-160.

(6) 安春根, op. cit., pp. 13-26.

(7) 張秀民, op. cit., pp. 27-58.

(8) 邵經邦, 「弘問錄」 卷 46.

(9) 張秀民, op. cit., pp. 59-64.

(10) 秀氏祐祚, 「東洋印刷史序說」, 京都, 平樂寺書店, 1951, p. 16.

(11) 長澤規矩也, 「和漢書の印刷とその歴史」, 東京, 吉川弘文館, 1956, pp. 5-6.

(12) 劉國均, 「中國書史簡編」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58 pp. 51-57.

(13) 屈萬里·昌彼得 著, 沈喁俊譯, 「圖書板本學要略」 서울, 文成社 1966, pp. 50-56.

(14) CARTER, Thomas F.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rev. by Goodrich, L. Q. 2nd ed. New York, 1955, p. 41.

리고 프랑스의 Paul Pelliot는 敦煌文書를 中心으로 印刷의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서 607년 경의 것으로부터 소개를 하고 있다.<sup>(15)</sup>

이같이 광범위한 推定時期를 보다 좁히기 위해서는 現存하는 3種의 初期 木板印刷本을 들 수 있다. 즉 868년의 刊記로 이미 상당한 技術的 水準에 도달하여 印刷의 出現이 이보다 훨씬 앞섰을 것을 示唆하여 주는 中國의 金剛盤若波羅蜜經, 刊記는 적혀 있지 않으나 一般的으로 公認된 日本의 百萬塔陀羅尼, 그리고 704~715년 사이에 刊行된 것으로 보여지는 韓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그것이다.<sup>(16)</sup>

印刷의 精確한 發生時期 및 最古本에 대해서는 現在로서의 論爭點도 많으려니와 앞으로 도 꾸준한 研究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諸說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 다만 지금까지의 研究結果를 종합하여 볼 때 8세기를 바로 前後할 可能性이 상당히 짙은 것으로 思料되어 次後에 수정을 가하더라도 일단 上古以來 統一新羅의 初創期 무렵인 7세기末까지의 書誌資料를 收錄기로 하였다.

이 時期의 書誌의 對象資料는 크게 金石文과 筆寫本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筆寫本은 지금까지 發見되지 않았으며 다만 文獻上으로 나타나는 것을 추적하는 길 밖에 없는데 그나마 同時代를 代辯할만한 文獻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韓半島 內의 漢四郡의 設置라든가 그 廢止 이후에도 계속된 中國과의 緊密性으로 미루어 보아 韓國에서도 竹木이나 縑帛위에 筆寫<sup>(17)</sup>가 行해졌을 可能性이 있고 종이 역시 상당히 일찍 導入되어 筆寫가 盛行했을 可能性 또한 충분하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現存物은 물론 文獻上의 記錄조차 많지 않은은 실로 유감스런 일이다. 본디 종이는 濕氣나 病蟲害, 그리고 柔弱性으로 長久한 歲月이 흐르면 消耗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金石文이 最古의 文書로서 古代史 研究에 決定的인 書誌資料가 됨을 再確認하게 되는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의 金石의 主된 것으로는 碑碣, 墓誌, 墓表, 諡册, 石標, 石塔, 石燈, 石經, 石幢, 幢竿, 幢竿石柱, 石刻, 摩崖, 鍾, 金口, 造像, 塔誌 및 鏡鑑 등이 있는데 碑碣이하 摩崖에 이르는 十三種은 石文이고 鍾이하의 五種은 金文이다.<sup>(18)</sup> 이 중 가장 比重이 크다 할 수 있는 碑는 그 內容에 따라 紀績碑, 巡狩碑, 國境碑, 墓碑, 陵碑, 神道碑, 旌閭碑, 寺刹碑 및 塔碑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sup>(19)</sup> 7세기末까지의 現存하는 것으로는 紀績碑, 巡狩碑, 國境碑, 陵碑 등이며 그밖에는 墓誌石經, 石刻, 造像, 塔誌, 鏡鑑 등의 銘文을 볼 수 있다. 본 一覽에서는 이를 크게 樂浪 및 帶方郡縣의 遺蹟과 遺物, 碑銘, 造像銘, 器銘 및 기타로

(15) PELLIOT, Paul, *Les débuts de l'imprimerie en Chine*, Paris, Adrien-Maisonneuve, 1953, 138p.

(16) 李弘植, “慶州佛國寺釋迦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4號(1968) pp. 169-198.  
千惠鳳, op. cit., pp. 165-172.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74, pp. 18-22.

(17) 張秀民, op. cit. pp. 6-12.

(18)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韓國金石文補助資料Ⅲ,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8, pp. 24-25.

(19) ibid., pp. 25-29.

나누어 年代順으로 소개하고 이어서 未傳物로서 文獻에 나타나는 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날날이 解題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本人의 寡聞 탓도 있고, 또한 分量이 지나치게 방대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 問題의 提起와 一次的인 所在確認 정도만을 記載하기로 한다.

### III. 書誌資料一覽

#### 1. 現存物

##### A. 樂浪·帶方郡의 遺蹟과 遺物

20C初의 發掘에 의해 出土되었거나 發見된 것들로서 位置는 土城里 一帶와 黃海都 鳳山郡 沙里院驛 東南 約 十里에 있는 俗稱 唐土城 및 黃海都 安岳郡, 信川郡 등지에 산재된 것이었다.<sup>(20)</sup> 이 部分에 한해서는, 銘文이 단편적으로 各 遺物의 表面에 刻字된 것들이므로, 보여지는 銘文의 全部를 소개하기로 한다.

瓦當; 「樂浪禮官」「樂浪富貴」<sup>(21)</sup>

封泥; 「樂浪太守章」「朝鮮右尉」「訥郡長印」「口(粘)蟬口(長)印」「長岑長印」「增地長印」「昭明丞印」「東曠丞印」「不而左尉」「遂成右尉」「前莫左尉」<sup>(22)</sup>

銅鏡(內行花文鉅齒鏡); 「居攝元年, 自有眞家, 當大當, 耀常有陳, 里之治吏, 爲貴人, 夫妻相喜, 日益親善」(A.D. 6)<sup>(23)</sup>

漆器類; 「昭帝始元二年」(85B.C.), 「成帝陽朔二年」(23 B.C.), 「居攝三年」(A.D. 8), 「光武帝建武三十年」(A.D. 54)<sup>(24)</sup>

張撫夷之墓 塋面; 「天生小人, 供養君子, 千人造塋, 以葬父母, 旣好且堅, 典覺記之」「哀哉夫人, 奄背百姓, 子民憂感, 漁陽張撫夷塋」「八月廿日造塋, 日八十石酒」(長側面)「使君帶方太守張撫夷塋」「張使君」(端側面)(228? 288?)<sup>(25)</sup>

塋; 「建武十六年」(40), 「光和五年」(182), 「嘉平二年」(250), 「泰始四年」(268), 「泰和七年」(271), 「泰和十年」(274), 「咸寧元年」(275), 「太康四年」(283), 「太康七年」, 「太康九年」「太康四年三月 昭明 王長造」(283), 「元康五年」(295), 「太安二年」(302), 「永嘉」(307~312), 「咸和十年」(334), 「建元三年」(345), 「永和八年」(352).<sup>(26)</sup>

##### B. 碑 銘

粘蟬縣神詞碑(85年推定); 平安南道 龍岡郡 海雲面 龍井里 所在, 高 152cm, 幅 109cm, 厚 12cm, 銘

(20) 震禮學會編, 「韓國史」18版, 古代篇, 서울, 乙酉文化社, 1981, p. 154, p. 196.

(21) *ibid.*, p. 187.

(22) *ibid.*, p. 154.

(23) *ibid.*, pp. 189-190.

(24) *ibid.*, pp. 190-191.

(25) *ibid.*, pp. 197-198.

(26) *ibid.*, pp. 197-199.

字數 73, 隸書.<sup>(27)</sup>

輯安 魏母丘儉紀功碑(246年推定); 支那 盛京省 奉天住 吳光國氏藏, 高 26.7cm, 幅 26.4cm, 銘字數 48, 隸書.<sup>(28)</sup>

高句麗廣開土王陵碑(414年); 支那 盛京省 輯安縣 所在, 高 667cm, 幅 一面 155cm 11行 二面 144cm 10行 三面 197cm 14行 四面 139cm 9行, 銘字數 1,802, 字徑 10.6cm, 隸書.<sup>(29)</sup>

中原 高句麗碑(421~506年推定)<sup>(30)</sup>; 忠清北道 中原郡 所在, 總高 前面 203cm, 後面 188cm 左側 197cm, 右側 178cm, 碑面高 前面 144cm, 後面 126cm, 左側 141cm, 右側 136cm, 碑面幅 前面 55cm, 後面 52cm, 左側 37cm, 右側 32cm, 銘字數 385.<sup>(31)</sup>

川前里書石(5~6C推定)<sup>(32)</sup>; 慶尙南道 蔚州郡 川前里 所在, 長約 10m, 高約 3m의 板石, 銘字數 原銘 112, 追銘 194 題銘 436, 字徑 原銘 2~4cm 追銘 2cm 題銘 0.5~12cm.<sup>(33)</sup>

百濟武寧王誌石; 忠清南道 公州邑 宋山里 所在

其一(523年); 表面高 35.2cm, 幅 41.5cm, 厚 4cm, 銘字數 52, 字徑 2.5cm 裏面 銘字數 17, 字徑 1.5cm, 楷書

其二(526); 表面高 35.5cm, 幅 41.3cm, 銘字數 41, 字徑 2cm. 裏面 銘字數 58, 字徑 2~3cm, 楷書.<sup>(34)</sup>

永川青堤碑 其一(536年推定); 慶尙北道 永川郡 琴湖面 道南洞 所在, 高 130cm, 幅 93.5cm, 厚 45cm, 銘字數 105, 字徑 4.5~5cm, (同碑의 其二 其三은 各各 798年, 1688년에 해당).<sup>(35)</sup>

新羅眞興王巡狩碑;

1. 昌寧巡狩碑(541); 慶尙南道 昌寧郡 邑內面 末屹里 所在, 高 164cm, 幅 167cm, 厚 30cm, 銘字數 646, 字徑 3.9cm, 楷書.<sup>(36)</sup>
2. 黃草嶺巡狩碑(568年推定); 咸鏡南道 咸興郡 下岐川面 松堂里 所在(朝鮮哲宗三年 眞興里 黃草嶺으로 移轉) 高 125cm, 幅 45.4cm, 厚 21cm 銘字數 224, 字徑 2.4cm, 楷書.<sup>(37)</sup>
3. 北漢山巡狩碑(568年推定); 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舊基里 設置, 現在 國立博物館으로 移轉. 高 155cm, 幅 70cm, 厚 167cm, 銘字數 182, 字徑 3cm, 楷書.<sup>(38)</sup>
4. 磨雲嶺巡狩碑(568); 咸鏡南道 利原郡 磨雲嶺 所在. 高 147cm, 幅 44cm, 銘字數 398, 楷書.<sup>(39)</sup>

(27)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上, 韓國金石文全書 Ⅲ,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p. 1.

(28) *ibid.*, p. 2.

(29) *ibid.*, pp. 2-6.

(30) 忠北 中原地域에서 1979年 4月 8日 發見됨.

中原高句麗碑 學術會議論輯(1979). 史學志: 中原高句麗碑 特輯號, 檀國大學校(1979).

(31) 張俊植, 「高句麗 國原城 治址에 관한 研究」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1, pp. 17-22.

(32) 黃壽永, 「新羅의 蔚州書石」(「東大新聞」, 1971年 5月 10日).

(33) 金龍善, 「川前里銘文의 研究」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9.

黃壽永, 「韓國金石遺文」3版, 서울, 一志社, 1981, pp. 26-36.

(34) *ibid.*, pp. 49-51.

(35) *ibid.*, pp. 43-47.

(36) 「朝鮮金石總覽」上, pp. 6-8.

葛城末治, *op. cit.*, pp. 115-122.

(37) 「朝鮮金石總覽」上, pp. 9-10.

葛城末治, *op. cit.*, pp. 140-148.

(38) *ibid.*, pp. 148-153.

「朝鮮金石總覽」上 pp. 10-12.

(39) 李蘭映, 「韓國金石文追補」서울, 中央大學校出版部, 1969, p. 2.

高句麗城壁石刻(566年推定)；平安南道廳 所在，高 30cm，幅 67cm，厚 30cm，銘字數 23，字徑 3cm，楷書。<sup>(40)</sup>

高句麗城壁刻字(566年推定)；平安南道 平壤 所在，銘字數 18。<sup>(41)</sup>

平壤高句麗城壁石刻(569年推定)；吳世昌氏藏，高 18cm，幅 36cm，厚 27cm，銘字數 27，字徑 2.7cm，楷書。<sup>(42)</sup>

搗作碑(578年 推定·新羅)；慶北大學校 博物館 所藏，高 最大 103cm 最小 64cm，幅 廣 66cm 狹 53cm，銘字數 181。<sup>(43)</sup>

南山新城碑(591年推定·新羅)；慶州博物館藏。

其一；高 91cm，幅 44cm，厚 11cm 銘字數 172。

其二；高 121cm，幅 47cm，厚 10cm，銘字數 180。

其三；高 121cm，幅 30cm，銘字數 109

其四；高 51cm，幅 34cm，銘字數 56

其五；高 22cm，幅 20cm，銘字數 49

其六；高 18cm，幅 8cm，銘字數 9。<sup>(44)</sup>

新羅於宿墓誌(595年推定)；慶尙北道 榮州郡 豐基面 台庄里 所在，銘字數 一行 8字，字徑 4cm。<sup>(45)</sup>

百濟砂宅智積碑(654年推定)；扶餘博物館 所藏，高 102cm，幅 38cm，厚 29cm，銘字數 56。<sup>(46)</sup>

唐平百濟碑(660)<sup>(47)</sup>；忠清南道 扶餘郡 縣內面 東南里 所在，塔高 1061cm，第一層塔身高 136cm，方 218cm，銘字數 1940，字徑 4.5cm，楷書。題額字徑 11.5cm，篆書。<sup>(48)</sup>

百濟定林寺址五層石塔楣石刻字(660年推定)<sup>(49)</sup>；西側 銘字數 96，北側 銘字數 96，字徑 3.6cm，楷書。<sup>(50)</sup>

百濟石槽刻字(百濟下代)；扶餘博物館藏，圓形石槽 外口徑 165cm，總高 160cm，銘字數 250，字徑 3.9cm，楷書。<sup>(51)</sup>

---

葛城末治, *op. cit.*, pp. 129-138.

(40) 「朝鮮金石總覽」上, p. 8.

(41) 1964年 平壤城에서 發見.

黃壽永, *op. cit.*, p. 59.

(42) 「朝鮮金石總覽」上, p. 12.

(43) 黃壽永, *op. cit.*, pp. 38-43.

李蘭映, *op. cit.*, p. 3.

(44) 黃壽永, *op. cit.*, pp. 38-43.

(45) *ibid.*, p. 43.

(46) *ibid.*, pp. 53-54.

李蘭映, *op. cit.*, p. 14.

(47) 五層石塔의 第一層 塔身에 刻함.

(48) 「朝鮮金石總覽」上, pp. 12-17.

(49) 唐平百濟碑銘 第一層 楣石部의 刻銘  
東南兩側은 不明

(50) 黃壽永, *op. cit.*, pp. 54-56.

(51) *ibid.*, pp. 56-58.

(52) 「朝鮮金石總覽」上, p. 22.

葛城末治, *op. cit.*, pp. 161-165.

新羅武烈王陵碑(661年推定)；慶尙北道 慶州郡 府內面 西岳里 所在，螭首高 111cm，幅 145cm，厚 33cm，額縱 48cm，橫 33cm，字徑 9cm，篆書。(52)

唐劉仁願紀功碑(663年推定)；忠清南道 扶餘郡 縣內面 宮北里 扶蘇山 所在，碑身高 238cm，厚 36cm，字徑 2.4cm，楷書，螭首高 114cm，幅 133cm，題額字徑 6cm，篆書 陽刻，銘字數 2284。(53)

四天王寺碑(679年以後推定)<sup>(54)</sup>；國立博物館藏，斷石縱 12cm，幅 11cm，銘字數 10，字徑 10cm，楷書。(55)

新羅文武大王陵碑(682)；

第一石(「海東金石苑」所載)；銘字數 213。

第二石(慶州博物館藏)；高 52cm，幅 64cm，厚 24cm，字徑約 2cm，銘字數 前面 28行 312，後面 20行 207。

第三石(「海東金石苑」所載)；銘字數 61。

小片(慶州博物館藏)；厚 2cm，方眼 3cm，銘字數 2。(56)

新羅金仁問碑(694?)<sup>(57)</sup>；慶州博物館藏 幅 100cm，高 76cm，厚 18cm，銘字數約 526。(58)

高句麗泉男生墓誌(679)；河南省 河洛道 洛陽 所在，縱 87cm，橫 88cm，銘字數約 2035，字徑 1.5cm，楷書。(59)

高句麗高慈墓誌(700)；河南省 河洛道 洛陽 所在，縱 74.2cm，橫 73.6cm，銘字數約 1213，字徑 1.5cm，楷書。(60)

### C. 造像銘

永康七年銘金銅光背(396推定·高句麗)；平安南道 平壤 所在，高 21cm，幅 15cm，厚 3mm，銘字數 53。(61)

癸未銘金銅三尊佛光背(571 辛은 623年推定·百濟)；全晟雨氏 所藏，高 17.5cm，光背高 12.5cm，銘字數 17。(62)

辛卯銘三尊佛像光背(571年推定·高句麗)；金東鉉氏 所藏，光背高 15.5cm，幅 9.2cm，銘字數 67，楷書。(63)

(53) 「朝鮮金石總覽」上, pp. 17-22.

(54) 679年은 寺設立年代

(55) 「朝鮮金石總覽」上, p. 27.

(56) 「朝鮮金石總覽」上, pp. 109-113.

黃壽永, op. cit., pp. 61-65.

劉燕庭, 「海東金石苑」卷1, 新羅文武王陵殘碑.

(57) 694年은 金仁問의 沒年임.

(58) 黃壽永, op. cit., pp. 65-67.

(58) 葛城末治, op. cit., pp. 169-180.

(60) ibid., pp. 187-195.

(61) 李蘭映, op. cit., p. 47.

黃壽永, op. cit., pp. 238-239.

(62) ibid., p. 240.

李蘭映, op. cit., pp. 47-48.

(63) ibid., p. 48.

黃壽永, op. cit., p. 237.

丙辰銘金銅光背(596推定・百濟? 高句麗?); 國立博物館 所藏, 高 12.35cm, 下幅 8.7cm, 銘字數 39, 字徑 0.7cm, 楷書.<sup>(64)</sup>

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三國時代); 慶尙南道 宜寧郡 大義面 下村里 所在, 高 16.2cm, 銘字數 47, 字徑 0.9cm.<sup>(65)</sup>

金銅釋迦三尊佛像(三國時代); 서울國立博物館 所藏, 高 8.5cm, 銘字數 16.<sup>(66)</sup>

甲申銘金銅釋迦坐像光背(三國時代); 日本藤谷宗順 所藏, 半高 約 5.5cm, 銘字數 19, 楷書.<sup>(67)</sup>

甲寅年釋迦佛光背(594年推定・高句麗? 百濟?); 東京 國立博物館 所藏, 高 25.1cm, 幅 17.9cm, 銘字數 57, 楷書.<sup>(68)</sup>

新羅斷石山神仙寺造像銘記(7C推定); 慶尙北道 月城郡 西面 松仙里 所在, 解讀銘字數 376, 字徑 2~4cm.<sup>(69)</sup>

鄭智遠銘金銅如來立像(三國時代); 國立博物館 所藏, 總高 8.5cm, 銘字數 10.<sup>(70)</sup>

癸酉銘阿彌陀佛三尊四面石像(673年推定); 國立博物館 所藏, 高 43cm, 幅 26.7cm, 厚 17cm, 銘字數 208, 字徑 約 1cm, 楷書.<sup>(71)</sup>

癸酉銘三尊千佛碑像(673年推定); 「韓國金石遺文」所載, 正面 幅 11cm×高 21cm의 方區, 銘字數 84, 字徑 1.2cm, 楷書.<sup>(72)</sup>

戊寅銘蓮花寺四面石像(678年推定); 忠清南道 燕岐郡 西面 月河里 蓮花寺 所藏, 銘字數24(判讀可能數), 楷書.<sup>(73)</sup>

己丑銘阿彌陀佛及諸佛菩薩石像(689年推定); 國立博物館 所藏, 高 57.5cm, 下幅 31.5cm, 下端厚 8.5cm, 銘字數 30, 字徑 2cm, 楷書.<sup>(74)</sup>

#### D. 器銘·기타

皇吾里出土有銘鏹斗(三國時代); 國立博物館 所藏, 銘字數 4.<sup>(75)</sup>

百濟七支刀(369年推定); 日本 石上神宮 所藏, 長 74.9cm, 銘字數 61.<sup>(76)</sup>

好太王壺杆(415・高句麗); 國立博物館藏, 高 19.4cm, 徑 24cm, 銘字數 16.<sup>(77)</sup>

(64) 葛城末治, op. cit., pp.165-168.

黃壽永, op. cit., p. 239.

(65) ibid., p. 236.

(66) 李蘭映, op. cit., p. 49.

(67) 黃壽永, op. cit., p. 241.

(68) ibid., pp. 242-243.

(69) ibid., pp. 243-245.

(70) ibid., pp. 241-242.

(71) ibid., pp. 246-249.

(72) ibid., pp. 249-250.

(73) ibid., p. 250.

(74) ibid., p. 251.

(75) 李蘭映, op. cit., p. 63.

(76) ibid., p. 75.

(77) ibid., p. 75.



延壽在銘瑞鳳塚銀合杆(451·新羅); 「韓國金石文追補」所載, 銘字數 內21, 外19. (78)

百濟武寧王陵出土銀釧銘(6C); 銘字數 17, 外徑 8cm, 字徑 0.7cm. 楷書. (79)

百濟武寧王陵出土銅鏡銘(6C); 銘字數 26, 直徑 17.8cm. (80)

百濟前部銘標石(?); 扶餘博物館 所藏

其一 2字 字徑 9cm.

其二 縱 20cm 橫 44cm, 銘字數 11, 字徑 4cm. (81)

華嚴寺石刻華嚴經(677)<sup>(82)</sup>; 全羅南道 求禮郡 馬山面 黃田里 華嚴寺 所在, 總 60卷中 11片이 現存, 字徑 1.5cm, 楷書.

其一; 縱 9.7cm, 橫 5.8cm, 卷第十 75字中 12字 現存.

其二; 縱 13.6cm, 橫 13.3cm, 卷第十二 194字中 47字 現存.

其三; 縱 6cm, 橫 16.7cm, 卷第十三 230字中 25字 現存.

其四; 縱 11.8cm, 橫 7.3cm, 卷第十三 64字中 21字 現存.

其五; 縱 16.7cm, 橫 9cm, 卷第十九 103字中 31字 現存

其六; 縱 9.7cm, 橫 10.3cm, 卷第二十四 109字中 21字 現存.

其七; 縱 11.2cm, 橫 11.8cm, 卷第三十五 112字中 25字 現存.

其八; 縱 7.6cm, 橫 9cm, 卷第四十六 140字中 18字 現存.

其九; 縱 6.7cm, 橫 12.1cm. 卷第五十四 186字中 23字 現存

其十; 縱 6.6cm 橫 22.7cm, 卷第五十五 307字中 40字 現存.

其十一; 縱 12.1cm, 橫 9cm, 卷第五十五 97字中 21字 現存. (83)

## 2. 未傳物

前漢(206 B.C~8A.D.)末; 夫餘의 「瀛王之印」. (魏志30 夫餘傳 12張)<sup>(84)</sup>

百濟近肖古王30年(375); 高興의 「書記」編纂. (三國史記 百濟本紀 近肖古王三十年條)<sup>(85)</sup>

同王時(346—375); 王仁이 論語 十卷과 千字文 一卷을 日本으로 가지고 감. (古事記, 續日本紀, 古語拾遺)<sup>(86)</sup>

高句麗廣開土大王 5年(396); 東晉僧 曇始가 經律 數十部를 가지고 음. (海東高僧傳)<sup>(87)</sup>

(78) *ibid.*, pp. 75-76.

(79) 黃壽永, *op. cit.*, p. 51.

(80) *ibid.*, p. 52.

(81) *ibid.*, p. 52.

(82) 李能和, 「朝鮮佛敎通史」vol. II, pp. 152-153.

(83) 「朝鮮金石總覽」上, pp. 27-34.

(84) 國王의 副葬品인 玉匣등의 印.

同部類의 唯一한 現存物은 雲南地方에서 발견된 「瀛王之印」으로 栗原朋信, 「秦漢史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1960, pp. 220-228을 참조할 것.

瀛城과 夫餘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Li Ogg, *Recherches sur l'antiquité coréenne*, vol. 1, Collège de France, Centre d'Etudes Coréennes 1980, pp. 38-51을 참조할 것.

(85) 此外에도 「日本書紀」에 「百濟紀」「百濟本紀」「百濟新撰」 등이 引用된 것으로 보아 數種의 史書 編纂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86) 「韓國史, 古代篇」, p. 609.

(87) *ibid.*, p. 576.

百濟蓋鹵王18年(472)；北魏에 長文의 國書를 보냄(魏書 百濟傳).

百濟聖王 4年(526)；◎謙益이 印度에서 五部律의 梵本을 갖고 돌아와 二十八人의 名僧과 함께 律部七十二卷을 翻譯.

◎曇旭, 惠仁 兩法師가 律疏三十六卷을 著術<sup>(88)</sup>

百濟聖王19年(541)；使臣을 梁에 보내 涅槃經등의 經義와 毛詩博士를 請求.<sup>(89)</sup>

慶州我道和尚碑(新羅·544)；銘字數 422(三國遺史)<sup>(90)</sup>

新羅眞興王 6年(545)；大阿滄 居柴夫等の 「國史」編纂,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六年條, 同書 列傳 居柴夫.)

百濟聖王30年(552)；西部, 達率, 怒喇斯致契로 하여금 佛像, 經論·幡蓋등을 가지고 日本으로 渡東케 함. (日本書紀卷十九)

高句麗嬰陽王11年(600)；(既存의) 留記百卷을 刪修하여 李文眞이 「新集五卷」을 編纂.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嬰陽王十一年條)

百濟武王 2年(601)；觀勒이 佛教 外에 曆本·天文地理 및 遁甲方術의 書를 가지고 日本에 감. (日本書紀, 三大實錄)<sup>(91)</sup>

百濟武王十年(609)；道藏은 同年 日本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成實論疏十六卷」著述(日本書紀 本朝高僧傳 [日本])

高句麗末；道顯이 日本으로 건너가 「日本世記」若干卷 撰述. (日本書紀)<sup>(92)</sup>

舊唐書 高麗傳；『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記錄

舊唐書 百濟傳；『其書籍有五經子史, 又表疏竝依中華之法』記錄.

善德女王12年(643)；慈藏이 唐으로부터 大藏經一部 四百函을 갖고 귀국.<sup>(93)</sup>

以外에 慈藏은 「四分律羯摩私記」1卷 및 「十通律十又記」1卷을 著述<sup>(94)</sup>

圓側(613~696)의 著述；「成唯識論疏」「瑜伽論疏」「因明正理門論疏」「解深密經疏」「仁王經疏」「般若心經疏」「百法論疏」等<sup>(95)</sup>

元曉(617~686)의 著述；「大涅槃經宗要」「法華經宗要」「大慧度經宗要」「金剛三昧經論」「大乘起信論疏」「中邊論疏」「小阿彌陀經疏」「彌勒上生經宗要」「遊心安樂道」(以上 存)「成唯識論宗要」「成唯識論疏」「因明論疏」「因明論判比量論」「清辨護法空有諍論」「掌珍論宗要」「大華嚴經疏」「華嚴經一道章」「華嚴經大乘觀行」「法華經方便品料簡」「楞伽經疏」「楞伽經宗要」「維摩經宗要」「金光明經疏」

(88) *ibid.*, p. 579.

(89) *ibid.*, p. 572.

(90) 「朝鮮金石總覽」上, p. 25.

(91) 「韓國史」p. 579.

(92) *ibid.*, p. 580.

(93) *ibid.*, p. 583.

(94) 閔泳珪, “新羅章疏錄長編 不分卷”, 「白性郁博士回甲紀念佛教學論文集」(1959), pp. 347-402.

金聖洙, 「新篇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延世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2, pp. 38-44.

(95) 閔泳珪, *ibid.*

金聖洙, *ibid.*

「韓國史」pp. 583-585.

「般若必經疏」「勝鬘經疏」「不增不減經疏」「般舟三昧經疏」「解深密經疏」「大無量壽經疏」「方廣經疏」「梵網經疏」「梵網經略疏」「梵網經持犯」「瓔珞本業經疏」「大乘起信論宗要」「大乘起信論別記」「大乘起信論大要」「大乘起信論料簡」「攝大乘論世親釋論略記」「廣百論宗要」「三論宗要」「十門和諍論」「二諱章」「調伏我心論」「安身事心論」「求道警喻論」「初章」等<sup>(96)</sup>

義湘(625~702)의 著述; 「華經一乘法界圖」「白衣道場發願文」(以上 存)「大華嚴經十門看法觀」「華嚴經入法界品鈔」「小阿彌陀義記」<sup>(97)</sup>

憬興(上同時代)의 著述; 「俱舍論鈔」「大涅槃經疏」「法華經疏」「成唯識論貶量」「瑜伽論疏」「顯揚論疏」「因明理門義鈔」「大乘起信論問答」「金光明經述贊」「金光明經略贊」「解深密經疏」「無量壽經述贊」「阿彌陀經略記」「三彌勒經疏」「灌頂經疏」「藥師經疏」「十二門陀羅尼經疏」「金光般若料簡, 四分律羯磨疏」「法苑記」「拾毘尼記」「彌勒經述讚」「彌勒經逐義述文」等<sup>(98)</sup>

新羅文武王15年(675); 銅으로 百司와 州郡의 印章을 鑄造하여 나누어 줌(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十五年條)

新羅神文王六年(686); 使臣을 唐에 보내 禮典과 詞章을 請함.

則天武后 所司에 令하여 吉凶要禮 및 文館詞林의 規誡에 關한 冊을 採寫하여 五十卷으로 만들어 이를 賜함(舊唐書) 列傳一四九上, 東夷新羅, 「新唐書」 列傳一四五, 東夷新羅, 「三國史記」 新羅本紀, 神文王六年條)

#### IV. 結 語

以上 印刷出現以前 7세기末까지의 韓國書誌資料를 一見한 바,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文字의 導入은 물론 그 記錄面에서의 中國의 影響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現存 最古의 銘文이 漢四郡時代로부터 出發되거니와, 當時의 刻字가 漢人의 技術인지 韓人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絕對的인 그 概念이 도입된 것만은 틀림없으며 以後에도 各種 古典이나 經典이 中國으로부터 流入됨을 볼 수 있다.

둘째, 순수한 韓人의 意思나 技術을 담았을 三國時代의 金石文이나 그밖의 記錄이 漢四郡 때보다 內容上, 技術上으로 크게 發展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漢四郡時代의 銘文은 75字를 刻한 粘蟬縣神詞碑를 제외하고 年代의 表示나 個人 또는 團體의 位置나 職銜 등 단순한 材料上의 斷片的인 文句에 불과했으나 三國時代에는 大型의 碑文으로부터 造像銘, 器銘 등 그 種類도 多樣해진다.

셋째, 上古時代의 古文書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碑文의 內容은 주로 紀功碑, 巡狩碑, 國境碑 등 廣義의 紀績碑라 할 수 있는데 이는 同民族이 統一되지 않은 狀況에서 領土問題가 당시에 가장 큰 關心事였음을 示唆하고 있다.

넷째, 銘文이나 記錄에 나타나는 古代의 精神文化는 단연 佛敎로 代辯되며 造像銘이라든

(96) 上 同

(97) 上 同

(98) 上 同

가 佛經·佛書의 著述은 相對的으로 記錄文化的 發展을 加速化했다.

前述한 바 本 考察의 理想的인 方向은 보다 詳細한 說明과 解題를 兼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一次의인 書誌情報의 제공을 目的으로 各 資料의 所在(載)確認과 간단한 形態書誌學的 敘述로 일단시작을 했다. 보다 상세한 研究를 위해서는 註를 參照하되, 註의 參考文獻은 各 資料를 수록한 文獻中 가장 代表적인 것이나 最新의 것을 取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既存의 것이 漏落되거나 잘못된 것이 많았고 또한 새로이 發見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補充하고 보다 깊고 상세한 解題目錄으로 發展시킬 것을 약속하며 이 分野의 同 參者를 기대하는 바이다.

### 參 考 文 獻

#### 1. 書誌資料一覽用

韓國金石文全書 4種六冊,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1. 李俣·李偁, 「大東金石書」, 250p.
2. 劉燕庭編, 「海東金石苑」, 2vol.
3. 朝鮮總督府編, 「朝鮮金石總覽」 2vol.
4. 李蘭映, 「韓國金石文追補」, 366p.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韓國金石文補助資料Ⅲ,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8, 714p.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延世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2, 156p.

金龍善, 「川前里銘文의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9, 57p.

閔泳珪, “新羅章疏錄長編 不分卷” 「白性郁博士回甲紀念佛教學論文集, (1959) pp. 347-402.

史學志; 中原高句麗碑 特輯號, 檀國大學校(1979).

栗原朋信, 「秦漢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6, 344+15p.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서울, 景仁書林, 1968.

張俊植, 「高句麗 國原城 治址에 關한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1, 106p.

中原高句麗碑 學術會議論輯(1979).

#### 2. 古 文 獻

「舊唐書」 高麗傳, 百濟傳.

金富軾, 「三國史記」

邵經邦, 「弘間錄」 卷 46.

「新唐書」 東夷百濟.

「魏書」 百濟傳.

「魏志」 夫餘傳.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日本書紀」 30卷 15冊.

一然, 「三國史記」

「後漢書」 倫傳.

#### 3. 其 他

- 屈萬里 昌彼得共著, 沈喁俊譯, 「圖書板本學要略」, 書誌學叢書 I, 서울, 文成社, 1966, 200p.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究堂, 1974, 625p.
- 秀氏祐祚, 「東洋印刷史序說」, 京都, 平樂寺書店, 1951.
- 安春根, 「韓國書誌學」서울, 廣文書館, 1979, 208p.
- 劉國均, 「中國書史簡編」,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58 88p.
- 李弘植, “慶州佛國寺 釋迦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4號(1968) pp. 169-198.
- 李姬載, “朝鮮朝 活字鑄造 및 文獻刊行의 綜合的 評價” 「圖書館學」9輯(1982) pp. 53-74.
- 張秀民, 「中國印刷術的發明及其影響」北京, 人民出版社, 1958, 208p.
- 長澤規矩也. 「和漢書の印刷と その歴史」東京, 吉川弘文館, 1956, 192p.
- 千惠鳳, “韓國印刷術의 濫觴” 成均館大學校論文集 第19輯 (1974), pp. 157-180.
- CARTER, Thomas, Francis,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 ward*, New York, Ronald Press, 1955, 293p.
- LI, Ogg, *Recherches sur l'antiquité coréenne*, Collège de France, Centre d'Etudes Coréennes, 1980, 2vol.
- PELLIOT, Paul, *Les débuts de l'imprimerie en Chine*, Paris, Adrien-Maisonneuve, 1953, 138p.